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삿 2:1-10

2021년 11월 4일(목)

1.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가나안에 우상을 섬기는 단을 허물라는 것입니다(2절).

이 명령에 순종한 지파는 유일하게 유다지파입니다.
이때 유다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베섹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부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1장 21절에는 베냐민 지파,
27절 이하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30절 이하에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산지로 쫓겨나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가나안의 단을 허물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2절 하반절, “..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3절 상)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을 후회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둘째,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3절 중)

손을 찌르는 가시는 참을 수 있으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곳이 옆구리입니다.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3절 하)

‘올무’에 걸린 짐승은 곧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가나안의 단을 허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올무에 빠져,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이후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 걸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찌르는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우상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앗아가는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께 불완전한 순종을 한 죄의 댓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2.

여호와와 사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리를 높여 운다는 것은 눈물로 통곡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는 뉘우침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으로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뉘우치다, 후회하다’고 번역합니다.

또한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뉘우침과 함께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다, 돌아오다’로 번역합니다.

이 두 단어 중에서 회개는 ‘나함’이 아니라, ‘슈브’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의 뉘우침과 함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도 ‘메타노이아’인데,

이 단어도 마음의 뉘우침과 함께 행동이 온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뉘우칠 회’라는 글자와 ‘고칠 개’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들려준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죄에 대한 뉘우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의 단을 헐어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서도 쉽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뉘우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죄를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그 악을 뿌리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뉘우침은 있으나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이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가 110세에 죽은 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직접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
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던 광야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으나,
그들이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정착 세대에는 여호와를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했
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 광야 세대들이 이것을 놓친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정착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녀 세대에게는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세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이 있듯이 그저 그 많은 신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쳐야 할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4.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불순종의 댓가는 큼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순종을 심으면 그에 대한 열매는 고통과 울무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심으면 그에 대한 열매는 축복입니다.

둘째,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친 그 죄와 잘못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뉘우침에 머물면 또 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신앙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결국 고통을 줍니다.
유일신 신앙은 결국 승리와 생명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세대로서,
먼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들이 됩시다.
뉘우침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자들이 됩시다.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됩시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계승되어져 더 찬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